

우크라 “동부 바흐무트 영토 일부 탈환”

국방차관 “반격 며칠새 20km² 수복, 러시아군 진지 10여개 장악”

러시아 일부지역 후퇴 인정...젤렌스키 “시간 필요” 대반격 신중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를 둘러싼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나서며 최근 며칠 새 약 20km²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나 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이처럼 밝혔다.

말라르 차관은 “작군이 바흐무트에서 포격으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어느 정도 진격하고 있다”며 “또한 공수부대 투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라고 전황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방어가 수개월 지속되고, 특정 지역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전사들의 힘과 방위사령부의 뛰어난 지휘 능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말라르 차관은 앞서 14일 소셜미디어에 “오늘 우리 군이 바흐무트 북부와 남부에서 적 진지 10여 개를 장악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조만간 있을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반격을 앞두고 바흐무트 점령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 보급선을 지키기 위한 역공에 나서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고층 아파트와 빌딩 사이에서 강도 높은 전투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도 바흐무트 일부 지역에서 후퇴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지역에서의 전투가 대반격의 일환으로 비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5일 영국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반격 시기에 대해 “우리는 정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병력 부족’ 푸틴 “외국인 참전시 가족까지 러 국적 부여” 손짓

“의무적 전투참여 조건 없애”

우크라 전선 손실 확대 영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군에 복무하는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한층 수월하게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와 RBC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외

국인 등의 러시아군 입대를 장려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 복무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을 서명했다. 이 명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도입된 러시아군 복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명령을 개정한 것이다.

새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에 1년간 복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나 자녀, 부모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새 대통령령은 2022년 대통령령에서 ‘1년 이상’으로 규정했던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확정하고, 의무적 전투 참여 조항도 없앴다. 특히 이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6개월 이상 전투 행위에 참여하거나, 전투 중 입은 중상으로 전역하게 된 경우에만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모두 삭제됐다.

전장에 파견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 러시아 군부대에서 복무하더라도 국적 취득 신청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연합뉴스

렘브란트 초상화 작품 200년만에 경매

2점...예사가 134억원 전망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의 초상화 작품 2점이 오는 7월 영국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에 나올 예정이라고 영국 더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작품은 1824년 6월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뒤 200년 만에 다시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두 작품의 가격은 500만~800만파운드(83억 7000만~134억원)를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약 20cm인 두 작품은 1635년 그린 것으로, 초상화의 주인공은 렘브란트의 친척인 노부부 안 빌헬름 반 데르 플럼과 아헨 카렐이다.

초상화가 제작된 해 노부부는 렘브란트 어머니 니 소유 정원 바로 옆에 자신들의 정원을 마련하

는 등 렘브란트 가족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부부의 아들은 렘브란트의 사촌과 결혼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렘브란트와 함께 그림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부부의 후손들이 125년간 보관해온 두 작품은 1760년 처음 경매에 나왔다.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영국 왕 조지 3세의 침실 시종관을 지낸 클렌리온 1대 남작 제임스 머레이에 의해 1824년 6월 크리스티 경매에 부쳐졌다.

당시 경매에서 두 작품을 사들인 이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200년간 보관해오다 이번에 경매에 내놓기로 한 것이다.

두 작품은 경매에 앞서 미국 뉴욕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불참에 호주, 쿼드 정상회의 취소

앨버니지 총리 “G7 회의때 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내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하자 앨버니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없이는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연기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라며 빠른 기회에 호주 방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취소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6월 1일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라넨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모두가 이번 주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기간에 함께 모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호주와 인도는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에 오지 않더라도 모디 인도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가 호주를 찾을 가능성은 아직 있다며 이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다. 현지 미국 대통령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호주를 찾은 것은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돌고돌고 찾지 못하며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우려가 커지자 전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만 방문하고 21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보석 불복 항고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플랩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에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

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사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넷을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폭우로 범람한 이탈리아 볼로냐 거리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주(州) 볼로냐에서 주민들이 폭우로 침수된 거리를 걷고 있다. 에밀리아-로마냐주와 중부 마르케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주민 9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당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